

광복기 밀양 지역문학과 『華岳』

이 순 옥*

차 례

1. 들머리
2. 화악동인회의 이념과 지향
3. 화악동인회의 인적 구성과 활동
4. 향토의 발견과 장소사랑
 - 4.1. 영남루 표상과 높은 심상성
 - 4.2. 생활세계의 변화와 계몽지향성
5. 마무리

1. 들머리

지역자치단체들이 지역을 소개하는 관광책자를 발간하거나 향토사, 지역사, 지지(地誌)의 이름으로 국가 중심의 역사학을 상대화하면서 일련의 지역상(地域像)을 구축하는 일에 바빴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를 통해 지역은 새롭게 발견되고 일정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었다. 문화지리학이나 문화경제학의 실질적 효용성을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지역은 이미 민속학이나 인류학, 역사학 등의 다양한 분과학문의 지원에 힘입어 새롭게 창안되고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과정을 되풀이하고

* 부산대학교 강사

있는 셈이다.

이즈음 지역문학 연구는 그 당위성을 넘어 하나의 유행담론으로 확산되는 듯한 양상을 띤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문학 연구의 영역이나 시각도 꽤나 넓어졌다. 지역문학 연구의 당위성을 강조하던 논의는 어느새 당연하다는 듯이 물러서는 형국이고, 지역문학의 개념과 범주, 연구방법론, 지역문학사 서술의 문제 등에 걸쳐 연구영역의 분화와 진전이 새삼스럽다. 물론 비판적 성찰의 과정 없이 문제의식만을 이어받아 이미 구축된 당위의 토대 위에서 지역을 덧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동안 지역문학사의 발간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¹⁾ 장차 시, 소설, 연극, 아동문학 등의 특정 갈래로 나아가는 연구경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²⁾ 그런데도 이러한 통사들은 지역 문학사회의 동향을 살필 수 있는 1차 문헌사료를 미처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문학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피는 데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³⁾ 비교적 최근에 발간된 『울산문학사』를 보더라도 1947년 울산문우회에서 낸 울산 최초의 문예지 『태화강』 1·2집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광복기 울산 지역문학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지역문학 연구는 1차 문헌을 바탕으로 한 실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실증이야말로 지역문학 연구의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다. 1차 문헌사료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역매체총람’, ‘지역문예지총람’, ‘지역문예지집성’ 등의 이름으로 토대를 구축하는 기초 작업

- 1) 광주문인협회, 『광주문학사』, 한림, 1994; 경남문학사편집위원회, 『慶南文學史』, 불휘, 1995; 전남문학백년사업추진위원회, 『전남문학변천사』, 1996; 부산문인협회, 『부산문학사』, 1997; 한국문인협회 고성지부, 『고성문단 50년』, 경남, 1999; 전북문인협회, 『전북문학사』, 신아출판사, 1996; 한상렬, 『인천문학사』, 서해, 1999; 울산광역시문인협회, 『울산문학사』, 2004; 김대규, 『안양문학사』, 우인스, 2005; 김병택, 『제주 현대문학사』, 제주대출판부, 2005; 김동윤, 『제주문학론』, 제주대학교출판부, 2008 등이 대표적이다.
- 2) 부산과 경남만 보더라도 지역연극사를 다룬 논의로 김동규의 『부산연극사』(예니, 1997)와 조용대의 『진주연극사』(한국연극협회 진주지부, 2002) 등이 있다.
- 3) 이와 관련하여 박태일은 문헌학적 접근을 지역문학 연구의 바탕으로 삼으면서 일찍부터 기초문헌의 간수와 갈무리가 필요한 까닭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박태일, 『한국 지역문학의 논리』, 청동겨울, 2004, 18~21쪽.

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밀양문학사를 서술하기 위한 예비적인 논의로서,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 있는 광복기 밀양 지역문학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광복 이전 밀양 지역에는 문학 매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도문단에서 활동한 문인도 거의 없다. 박석정과 표문태⁴⁾가 드물게 시와 소설을 발표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활동무대는 주로 서울이거나 일본이었다. 1928년 밀양소년회에서 『활살』을, 문예동인회에서 『문예』를 발행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주로 사회주의 교양 학습의 성격이 강했다. 특히 『문예』는 이미 『신소년』과 『조선일보』에 시를 투고해 왔던 소년문사 박석정이 주도한 매체이다.⁵⁾ 이외에도 밀양공립농잠학교에서 발행한 『校友會報』⁶⁾을 통해 당시 학생들의 문학활동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다. 이처럼 근대 밀양 지역문학은 박석정과 표문태를 제외하고는 내세울만한 문학인이나 문학매체가 없었던 셈이다.

광복기 또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박석정이나 표문태가 지역에 머문 흔적은 있지만, 지역 안쪽에서 활동하지는 않았다. 이런 점에서 화악동인회가 발행한 『華岳』은 광복기 밀양 지역문학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매체이다. 이 글에서는 『華岳』을 대상으로 화악동인회의 이념과 인적 구성, 밀양의 특정 장소가 의미화되는 방식을 살피고자 한다. 이

4) 소설가이자 수필가인 표문태는 문학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이름이 드높았으며, 2007년 9월 질병으로 돌아갔다. 표문태의 문학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폈다. 김영희, 「표문태의 삶과 소설-소설집 『서러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밀양문학』 제20집, 밀양문화회, 2007, 184~227쪽.

5) 현재 이 매체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동잡지 『새벗』 지사를 운영하거나 문예전람회와 독서회를 개최하면서 계급의식과 문학교양을 고취시켜 온 밀양소년회의 기관지로 보인다. 이순옥, 「박석정의 삶과 문학 활동」, 『어문학』 제91집, 한국어문학회, 2006, 460~461쪽.

6) 『校友會報』 제2호, 밀양공립농잠중학교, 1929.8. 손경룡, 김명영, 구말복, 김상득, 임한록, 허용수, 김수룡 등 졸업생과 재학생의 시와 함께 문예물을 수록하고 있으나, 진주 경남공립사범학교의 김병호, 손풍산, 엄홍섭, 양우정처럼 전문문사로 나아간 경우는 없다.

를 통해 광복기 밀양 지역 지식사회의 동향과 지역에 대한 인식을 고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매체 발간의 전통이 한국전쟁기의 매체 간행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가를 해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화악동인회의 이념과 지향

광복기는 매체의 정치성이 가장 두드러진 시기이다. 좌우의 이념 대립과 노선 갈등이 극심했던 1946년 초반까지 좌파 계열의 잡지 매체가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밀양 지역만 하더라도 최초의 잡지 매체는 좌파 계열에서 낸 종합지 『등불』이었다. 『등불』은 1946년 4월 창간호를 내었다. 발행인은 당시 교사로 일했던 서우용(徐遇容)⁷⁾이며, 발행소는 교맹문화선전부(敎盟文化宣傳部)로 밀양공립국민학교(현 밀양초등학교) 사무실에 본부를 두었다. 창간호로 종간되었으며, 밀양출판노동조합인쇄부(인쇄인 박창화, 밀양읍 본정)에서 찍었다. 정치, 사회, 교육, 문예 등의 내용을 망라하였으며 좌파적 색채가 짙었던 종합잡지 매체로 알려져 있다.⁸⁾

『등불』에 맞서는 우파 계열의 잡지 매체가 발간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보다도 의열단과 김원봉에 대한 밀양 지역사회의 각별한 애정에다 전반적으로 좌익 단체들의 활동이 우세했기 때문이다.⁹⁾ 물론 지역 안쪽에서 명

7) 서우용은 경남의 의령공립보통학교, 삼가공립보통학교, 진해제삼삼상소학교, 그리고 밀양의 상남제이삼상소학교에서 교원으로 일했다. 국사편찬위원회 누리집(www.history.go.kr)의 직원특자료 참고.

8) 박정상, 『부산 경남의 신문 잡지 출판 고』, 『전망』 제1집, 시로, 1984, 209쪽. 현재 이 매체를 확인할 수 없어 광복기 밀양 지역 지식사회의 동향을 총체적으로 해명하기는 힘들다.

9) 광복 초기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밀양지부와 농민조합 사이에 대립이 있었지만 건준, 농조, 노조, 청년동맹이 조선의 자주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한뜻으로 밀양군 인민위원회를 결성했다. 이 때,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독립지사 영령의 위령제를 결의사항에 포함시킨 것은 의열단과 밀양의 관련성 때문이었다. 그만큼 밀양 지역의 정치 사회단체들은 김원봉에 대한 각별한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는 의열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상당한 인기를 끌어 조선의열단, 의열청년회, 의열동지회라는 단체를 조직하기도 했으며, 김원봉이 이끌던 조

망 있는 사회운동가 그룹이나 문화계 인사가 거의 없었다는 점¹⁰⁾과 당시의 열악한 출판 사정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다 1947년 들어 미군정의 탄압으로 좌파들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재편된다.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에 힘입어 화악동인회에서 발간한 동인지가 바로 『華岳』이다. 『華岳』 제1호의 판형은 14.8cm×21.2cm이며, 63쪽 분량이다. 1947년 6월 15일 발행하였으며, 밀양읍 내일동 소재 밀양인쇄소에서 찍었다. 제2호의 판형은 14.5cm×20.7cm이며, 전체 94쪽이다. 1947년 12월 1일 발행하였으며, 협동인쇄소(밀양읍 내일동)에서 찍었다. 1호는 편집 문제로 출판기일이 늦어졌으며¹¹⁾, 2호는 “8·15 기념호”로 발행하려고 했으나 인쇄 도중에 기술상의 문제로 늦어졌다고 한다.¹²⁾ 이를 통해 『華岳』은 광복기 밀양의 열악한 출판 환경에다 동인회의 편집 능력 부재가 겹쳐 비정기적으로 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華岳』은 문예에 관심을 둔 밀양의 지역인사들이 낸 동인지이다. 『회칙』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相互研磨하여 郷土文化向上에 寄與하”¹³⁾는 것을 ‘취지’로 삼았다. 그런 까닭에 동인지의 이름도 밀양의 진산인 화악산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당시 매체 발간 경험이나 대타의식을 내세울 뚜렷한 집단이 없었던 상황에서 화악동인회가 표방한 기치는 향토문화의 창달과 향상이었다.

(1)

思想이 다르고 政治理念이 다르더라도 한 개의 새 나라를 建設한다는 自

선민족혁명당 지부조직이 가장 먼저 결성된 지역도 바로 밀양이었다. 김승은, 「8·15 이후 통일민족국가 수립운동과 밀양」, 『밀양의 독립운동사』, 강만길 엮음, 밀양문화원, 2003, 501~511쪽.

10) 같은 시기 진주만 보더라도 좌우 노선에서 독자적으로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다. 비록 매체를 통해 좌우의 이념 대립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조선문학가동맹 진주지부가 기관지 『문학신문』과 『문학』을, 우파 계열의 진주시인협회에서는 『등불』을 발간하는 등 지역사회 안쪽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다.

11) 『編輯後記』, 『華岳』 제1호, 화악동인회, 1947.6, 3쪽.

12) 『編輯後記』, 『華岳』 제2호, 화악동인회, 1947.12, 94쪽.

13) 『會則』, 『華岳』 제1호, 60쪽.

覺과 精誠이 確然하다면 五十步 百步가 아니겠소 아니 朝鮮을 참말 사랑한다면 朝鮮의으로 습쳐질 길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줄임)- 여기 우루 密陽의 몇몇 젊은이는 祖國을 남몰래 걱정하며 二人二派 三人三派를 미워하며 이름 업는 사람으로서 滿足하기로 하여 鄉土文化 向上에 적으나마 이바지되는 점이 있다면 남 모르는 幸福感을 느끼기로 하였습니다.

同人들은 주로 文藝方面에 置重 專門하기로 出發되어서 會名도 그리 만드려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다면 會員의 局限과 鄉土의 實情을 좀힐 念慮가 있겠기에 各部門을 總網羅하기로 最初의 計劃을 變更했습니다.

어느 部門이 文化創造와 向上에 功獻아니될 것이 잇겠습니까14)

(2)

鄉土를 사랑할 수 잇는 사람이 國家를 사랑할 수 잇으며 高尚한 趣味와 人格으로 結合할 때 反目과 紛糾가 업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同人의 이름밧테 제각기 專門과 趣味를 土臺로 하여 오로지 마음과 뜻을 습하며 混亂과 迷宮에서 彷徨하는 겨레를 直接間接으로 補導하는 役割을 期하는 으뜸의 풀이 되고자 합니다.

내 鄉土를 좀더 向上하게 하고 내 고향을 빛나게 하려면 文化의 進展업시는 期할 수 업습니다. -(가운데 줄임)- 한 권의 보잘 것 업는 책이지만 水準과 方式이 낮고 못남이 잇슬지 모르나 오직 眞正한 鄉土文化 向上의 情熱만으로 내놓은 것입니다.15)

우리의 근대문학에서 향토가 표상되는 방식은 다분히 복합적이다. 그것은 조선적인 것의 상징이자 반근대성의 표상으로서 전통이나 고유 풍속, 자연의 의미를 뛰어넘어 시골, 농촌, 반도, 지방, 조선 등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16) 광복기 화악동인회의 향토 인식 또한 이 시기의 향토 표상

14) 박태을, 「同人誌 創刊號를 내면서」, 위의 책, 6~7쪽.

15) 박경호, 「發刊辭」, 위의 책, 2~3쪽.

16) 나라잃은시대의 향토 표상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오성호, 「「향수」와 「고향」, 그리고 향토의 발견」, 『한국시학연구』 제7호, 한국시학회, 2002.11, 163~194쪽.; 김양선, 「1930년대 소설과 식민지 무의식의 한 양상」, 『한국근대문학연구』 제5권 제2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04.10, 146~171쪽.; 한만수, 「1930년대 “향토”의 발견과 검열 우회」,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

과 유사한 점이 적지 않다.

인용문 (2)에서 향토는 밀양을, 즉 영남루나 아랑각 등의 전통문화유산을 공유하는 지리적 행정단위를 일컫는다. 그것은 “고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기 새로운 민족통일국가의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향토는 단순히 나고 자란 고향이라는 의미를 넘어 조국이나 국가의 의미로 확장된다. 즉 향토를 통해 새로운 민족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향토는 국가의 이미지로서 표상되었던 것이다.

“鄉土를 사랑할 수 잇는 사람이 國家를 사랑할 수 잇”다는 말은 향토를 “국가”와 등가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애향심과 애국심은 같은 맥락에 놓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향토사랑은 국가사랑을 의식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제이다. 일반적으로 향토가 시간적·공간적·인식적 일체감을 공유하는 지역을 의미한다고 보면, 이러한 향토와 국가의 동일시는 광복기의 좌우분열을 봉합하고 민족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混亂과 迷宮에서 彷徨하는 겨레를 直接間接으로 補導”하는 방법은 향토문화의 향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논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화약동인회가 ‘향토’와 ‘향토문화’를 강조한 까닭은 광복기의 혼란스러운 좌우 대립 속에서 “朝鮮적으로 舍쳐질 길”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향토는 당시의 좌우분열을 극복하고, “새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적인 차원에서 ‘발견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남의 힘으로 내를 살리려는 마음과 그 틈을 타서 政權을 잡으려는 徒輩는 거룩하고 切迫한 이 마당에서 깊이 改心할 것이다.

左翼은 左翼으로서의 特色이 있고 右翼은 右翼으로서의 祖國을 사랑하는 至誠이 있지만 翼은 翼也지 體는 아니니 서로 提携全力하여 二年間의 經驗에서 各自 反省하고 오로지 完全自主獨立을 爲한 歸結點에 向하여 惝悵와 反目을 버리고 三八線을 문지르고 남이 세울 祖國이 아닌 것을 한소리로 외

회, 2006.3, 379~402쪽; 오태영, 「'향토'의 창안과 조선문학의 탈지방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4호, 한국근대문학회, 2006.10, 225~256쪽.

치자 權城民族(權城民族-글쓴이)의 이름으로……,17)

인용문은 민족 통합과 새 나라 건설에 대한 화악동인회의 이념 지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망생(展望生)의 평문 「時事數題」이다.¹⁸⁾ 탁치(託治) 정국 속에서 좌우합작을 통해 “남이 세울 조국”이 아니라 “完全自主獨立”을 향한 민족의 열망을 잘 담고 있다. 그런 까닭에 비판의 대상은 “남의 힘으로 나를 살리려는 마음”과 “그 틈을 타서 政權을 잡으려는 徒輩”들이며, 좌우 편향성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히려 민족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강조한다. “翼은 翼”이지 “體”는 아니라 본다. 다시 말해 좌익이든 우익이든 한 경향(날개)일 뿐 전체(몸통)는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몸통은 바로 우리 민족, 즉 “權城民族”을 일컫는다. 따라서 이념 갈등으로 “방황하는 겨레”를 통합하는 방법은 좌우익의 제휴를 통한 “완전자주독립”이며, 그 명분은 “權城民族의 이름”이다. 좌우합작의 중심 개념으로 민족¹⁹⁾을 설정함으로써 좌익이나 우익에 대한 일방적인 배제를 지양할

- 17) 전망생(展望生), 「時事數題」, 『華岳』 제2호, 62쪽. 이 글의 말미에 “T·P 솜”이라 부기되어 있는데, 동인 가운데 여기에 가장 가까운 머리글자를 쓰는 이는 박태올이다. 실제로 『華岳』 1·2호를 통해 시사적인 논평을 담고 있는 글로는 「同人誌 創刊號를 내면서」와 「時事數語」가 전부인데, 글의 내용과 논조를 볼 때 박태올로 추정된다. 특히 이 글에서 학생과 교사의 역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것은 당시 밀주공립초등학교(현 밀주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했던 그의 이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18) 이 글은 “때 늦은 感이 있어 執筆者的 掲載拒絕을 달래야했다”(「編輯後記」, 『華岳』 제2호, 94쪽)는 편집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탁치 논의가 한창이던 시기에 쓴 것으로 보인다. 1947년 7월 10일 제2차 미소공위가 결렬되면서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이 가시화되기 이전이 아닐까 싶다. 전망생은 이 글에서 다섯 가지 현안을 다루고 있는데, 주로 자주독립국가 건설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교사 문제>는 조선인을 완전한 조선민족으로 육성해야 하는 교사의 자질을, <조선학도와 맹휴문제>는 조선민족혼을 가지기 위한 학생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신탁통치의 부당성을 지적한 <탁치문제>, 미소공위보다는 민족의 역할을 강조한 <공동위원회 문제>, 삼팔선을 없애기 위한 조선민족의 단결을 강조한 <눈물의 삼팔선 문제>는 자주독립을 향한 열망을 격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망생(展望生), 위의 글, 52~62쪽.
- 19) 물론 광복기의 문학지형 안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복잡적이며 논쟁적인 용어로 사용된다. 화악동인회는 민족문학을 순수문학으로 이해했다. “本誌의 中心

수 있었다. 민족 통합에 대한 이러한 요구와 지향은 좌우합작을 통해 민족통일전선 운동을 전개해 온 김원봉의 영향과 당시 넓은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좌우합작운동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열망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광복기 민족 구성원들의 분열 속에서 화악동인회가 눈길을 돌린 영역은 '향토'의 발견이었고, '향토문화'에 대한 관심이었다. 이것은 민족통합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민에게는 지역문화에 대한 일정한 문화적 학습 효과를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1호에 실린 「嶺南樓의 由來와 勝景」(이진화), 「嶺南樓 風景詩」(류장춘), 「嶺南樓十景詩」와 「登嶺南樓」(이진화)²⁰를 대표적으로 거론할 수 있다. 그러나 필진의 성향을 따르다 하더라도 2호에서는 향토와 관련된 일관된 기획이나 문학작품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 그만큼 동인회가 애초 내세웠던 취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했던 셈이다.

3. 화악동인회의 인적 구성과 활동

화악동인회의 주요 사업은 「회칙」 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바, “동인지 발행”과 “연구회” 활동이었다.²¹ 처음에는 “主로 文藝方面에 置重 專門하기로 出發”하기로 했으나, “會員의 局限과 郷土의 實情을 忖할 念慮”²²가 있어 외연을 확대했다. 회원은 별다른 자격 조건 없이 취지에 찬성하면

部面인 文學에는 …… 創作 「初雪」이 純粹(民族)文學의 新境地를 打開할 것이니 期待를 바란다.” 「編輯後記」, 『華岳』 제2호, 94쪽.

20) 이진화는 자신의 시와 함께 도원흥(導源興)과 신석균(申奭均)의 영남루 제영시를 각각 1편씩 수록하고 있다. 이 시는 밀양의 광복열사 윤치형(尹致衡)이 「향토 레찬 내 고을 명물-密陽 名物 嶺南樓의 勝景」(『동아일보』 1926.7.28, 5면)에서 영남루를 소개할 때 똑같이 덧붙이고 있다.

21) 「會則」, 『華岳』 제1호, 60쪽.

22) 박태울, 「同人誌 創刊號를 내면서」, 위의 책, 6쪽.

수시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보아 회원의 입출입이 상당히 개방적이었다. 사무실은 회장 박경호²³⁾의 근무지인 제중의원에 두었는데,²⁴⁾ 실제로 그가 동인지 발간의 재원을 마련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창간호에 수록된 「회원일람」²⁵⁾을 통해 화악동인회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 장 박경호(朴景濼)

부회장 박태을(朴泰乙)

회 원 김문달(金文達), 신진기(辛軫基), 신학상(申鶴祥), 이규석(李揆石),
강혜수(姜惠秀), 이달녕(李達寧), 류장춘(柳長春) 권태동(權泰東),
이진화(李鎭華)

이외에도 송학준(宋鶴俊)과 김덕년(金德年), 박영욱(朴永郁)이 창간 당시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⁶⁾ 2집부터는 부분적인 개편과 신입회원을 영입하면서 동인회의 조직을 다져나갔다. 11월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최오문을 부회장으로 선임하여 박태을과 함께 2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간사로 박봉규(인쇄업자), 회원으로 지생업(농업은행 밀양지점 이사), 김종길(농업은행 밀양지점 직원), 정형석이 새롭게 참가하였다.²⁷⁾

23) 박경호는 1916년 경남 양산군 상북면 외석리에서 났다. 호는 석운(石雲, 들구름)이다. 1930년 양산 상북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구포 근산의원장이었던 김형주 선생에게 의학을 습득하였다. 1941년 5월 조선의사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같은 해 11월 밀양읍 내일동에서 제중의원(濟衆醫院)을 열었다. 1979년 5월 큰아들에게 물려줄 때까지 50년 가까이 밀양 지역에서 의술을 베풀었다. 한국전쟁 후에는 밀양읍의회 부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광복기와 한국전쟁기를 거치면서 밀양 지역 문화예술계의 적극적인 후원자로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 낸 책으로는 「石雲隨筆集」(대영문화사, 1982)이 있다.

24) 「會員募集」 광고, 「華岳」 제1호, 23쪽.

25) 「會員一覽」, 위의 책, 62쪽.

26) 「編輯後記」, 위의 책, 63쪽.

27) 문헌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회원으로는 박봉규, 지생업, 김종길 등이 있다. 이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유종관 시인(현재 밀양시 삼문동 거주, 밀양문협 회원)과 화악동인이었던 권태동 선생(현재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거주, 부북면 노인회장)의 증언을 참고하였다.

화악동인회는 인적 구성에서 당시 밀양의 교육계 인사(박태을²⁸), 이진화²⁹, 신학상³⁰, 강혜수³¹, 권태동³², 이달녕³³, 송학준³⁴, 신진기³⁵)와 금

-
- 28) 경남 남해 출신으로 창선심상소학교를 거쳐 광복기에는 밀양의 초동공립국민학교와 밀주공립국민학교 교장으로 일했다. 지역 인사들 사이에서 그는 소설가로 알려져 있다.
- 29) 이진화는 1889년 경남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에서 났으며, 자는 영춘(永春)이다. 1911년 사립대성보통학교를 거쳐 1913년 진주공립농업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용남공립보통학교 대용(代用)교원으로 일하다가 1913년에 그만두고, 1916년 밀양군 임시직원(雇員)으로 임명되어 1918년까지 일하면서 밀양과 인연을 맺었다.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때 밀양의 문명개화를 선도할 목적으로 동진학원을 설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1918년에는 조선총독부 군기수(郡技手)로 임명되어 창녕군에서 일했으며, 1923년 밀양공립보통학교 촉탁교원으로 임명되어 1930년까지 근무했다. 동진학원이 1947년 4월 밀양동진공민중학교로 승격될 당시 교장으로 일하면서 『華岳』 동인으로 활동했으며, 한국전쟁기에는 향토문화잡지 『文林』을 여러 차례 내기도 했다. 낸 책으로는 『玄眞鏡』(밀양·동화당, 1932), 『自然鏡』(밀양·동화당, 1939) 등이 있다.
- 30) 신학상은 밀양군 무안면에서 났다. 1929년 경북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일했다. 광복기에 상동공립보통학교, 밀양공립농잠중학교 교사를 거쳐 1952년에는 밀양교육청 교육감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한국전쟁기에 밀양교적보존회를 결성하여 회장으로 일하면서 1953년 9월에는 『鄕土文化』 제1호를 간행하여 밀양 지역문화의 보존과 창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낸 책으로는 『漢字語 발음사전』(광지사, 1955), 『西溟堂實記』(기린원, 1982), 『西溟堂의 生涯와 思想』(밀양시민신문사, 1994) 등이 있다.
- 31) 강혜수는 1924년 밀양군 상남면 마산리에서 났다. 부산 부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재만교무부립신경중학교를 거쳐 일본대학 전문부 문과를 졸업했다. 1943년 밀양 동진학교를 시작으로, 광복기에는 밀양공립농잠중학교, 부산공립공업중학교, 동래여자중학교 교사로 일했다. 1951년 9월 문충 밀양지부가 결성될 당시에는 조직부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文總創立과 文化運動十年小觀』,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1957, 124쪽. 이후 백전중학교와 무안중학교 교장을 거쳐 밀양중학교 교장으로 일하다 1983년 돌아갔다.
- 32) 권태동은 1926년 밀양군 부북면 위양리에서 났다. 밀양 사립정진학교를 졸업하고, 1945년 6월 밀양 기산국민학교 촉탁교원으로 교육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華岳』 발행 당시 월산국민학교 교사로 일했으며, 1952년 밀양군참사회 참사(參事)를 거쳐 송진국민학교, 정진국민학교 교사로 일하다 마산에서 교장으로 정년퇴직했다. 『大韓人士名鑑』 제1·2합집, 서울:대한홍보사, 1954, 111쪽.
- 33) 이달녕은 1925년 밀양군 단장면 단장리에서 났다. 동래공립중학교를 졸업하고, 동경 청산학원 중학부를 마쳤다. 1945년 11월 밀양공립보통학교 촉탁교원을 시작으로 밀주공립국민학교와 밀성공립국민학교, 세종중학교 교사로 일했다.
- 34) 송학준은 당시 밀양공립농잠중학교 교사로 일했으며, 『華岳』 1호 발간 직후 경

용인(지생업, 김종길), 의료인(박경호), 경찰관료(김문달³⁶), 출판인(박봉규)을 아우르고 있다.³⁷ 취선(翠泉), 목석(木石), 류장춘³⁸과 이규석, 김덕년, 박영옥³⁹, 최오문, 정형석은 구체적인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교육계 인사가 동인 구성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인지 교육계와의 수평적인 연대가 돋보인다. 창간호에 「축사」를 실었던 권태회⁴⁰는 당시 밀양 공립농잠중학교 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밀양 지역의 초중등학교의 교장(권태회, 이주형, 박벽영, 김종만, 박두석, 박태을, 감홍조, 박지돈, 이진화)과 밀양군 학무계 시학(주정문)이 창간 축하 광고를 실었던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창간호의 목차를 통해 동인들의 구체적인 성격을 살펴보자.

-
- 상남도 학무과 장학사로 영전했다. 『會員消息』, 『華岳』 제2호, 51쪽.
- 35) 신진기는 『華岳』 제1호와 2호에 발표한 「數學雜感」의 성격을 보아 당시 중학교 교사로 일했던 것 같다.
- 36) 김문달은 당시 밀양경찰서 경사로 일했으며, 『華岳』 1집을 내고는 第7管區경찰청으로 영전했다. 『會員消息』, 『華岳』 제2호, 51쪽.
- 37) 권태동 선생은 화악동인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강해수였으며, 혼자서 일을 도맡아 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華岳』의 편집후기를 강해수가 쓴 것으로 보아 신빙성이 적지 않다. 이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면 화악동인회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이 동일한 이념을 공유하면서 활동하지 않았으며, 매체에 수록된 글 또한 청탁이나 투고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2009.7, 전화통화)
- 38) 류장춘은 미술에 조예가 깊었다고 알려져 있다.
- 39) 박영옥은 1947년 5월에 개관한 사설밀양도서관 설립에 관여했던 인물이다. 『鄉土消息』, 『華岳』 제1호, 56쪽.
- 40) 권태회는 1907년 밀양에서 났다. 대구 계성중학교와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거쳐 평양신학교, 일본 동지사대학 신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목사로 일하다 광복기에는 경성신학교 강사, 밀양공립농잠중학교 교장, 김천중학교 교장을 지냈다. 1949년 경북 김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제헌국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다 한국전쟁기에 납북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 누리집(www.history.go.kr) 한국근현대인물자료 참고.

『華岳』 제1호 차례		
表紙	柳長春
題字	木石
칼	木石
創刊辭	朴炘灝
創刊號를 내면서	朴泰乙
祝辭	權泰義
嶺南樓의 由來와 勝景	李鎭華
文化民族과 自然民族	T·W 단절 ⁴¹⁾
【隨筆】 아욱국	翠泉
한글과 아리랑의 語源	申鶴祥
數學雜感	辛軫基
【詩】 三一節	牧鄉
청포도	R·S生
港口	權泰東
嶺南樓風景詩	柳長春
산길손	牧鄉
小曲	朴永郁
嶺南樓十景詩外二(漢詩)	同塵
【掌篇小說】 악몽(惡夢)	朴泰乙
郷土消息	編輯部 牧鄉/木石 記
會則	
會員一覽	
編輯後記	編輯部

창간호에는 회장단인 박경호와 박태을의 창간사, 권태희의 축사, 비평(이진화, 신학상, 신진기), 시(牧鄉⁴²⁾, R·S生⁴³⁾, 류장춘, 권태동, 박영욱)

41) 일본인 大場千秋의 번역을 木石이 改譯하여 실었다.

와 한시(이진화), 밀양을 배경으로 한 박태을의 장편소설(掌篇小說) 「악몽」, 수필, 번역문, 향토소식을 신고 있다. 목차에서 드러나듯이 시, 소설, 수필 등의 문예물이 중심이지만, 각별히 갈래의식을 바탕으로 매체를 발간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창간호에는 향토문화의 향상이라는 동인회의 취지와 적절하게 부합되는 이진화의 글이 돋보인다. 역사경관과 자연경관의 발견을 통해 향토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출한 경우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전쟁기 『郷土文化』에서 고스란히 재생산되고, 최근까지도 밀양을 기반으로 한 매체 활동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화악동인회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향토와 향토문화유산을 발견하고 그것을 의미화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향토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고 향토사랑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필진의 개인적 취향으로 볼 수 있지만, 향토문화의 제재를 영남무라는 특정한 범주에 한정된 것은 영남무가 갖는 대표성을 강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42) “第二號에는 牧郷의 단편소설 「아들의 모습」, 同慶先生의 朝鮮史 連載가 기대” 된다는 「編輯後記」(『華岳』 제1호)를 통해 목향이 박태을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목원(牧園)라는 필명으로도 시 「三一節」을 발표하기도 했다. “本誌의 中心部面인 文學에는 이미 讀者에 익은 牧園氏의 野心作인 創作 「初雪」이 純粹(民族)文學의 新境地를 打開할 것이니 期待를 바란다.” 「編輯後記」, 『華岳』 제2호, 94쪽.
- 43) 유종관은 1921년 밀양군 삼랑진읍 용성리에서 났다. 호는 운정(韻亭), 필명으로 류서(柳絮), 류몽곤(柳夢崑), R·S生을 썼다. 밀양공립보통학교를 거쳐 울산공립농업학교, 경성 공립농업학교 농업토목과를 졸업했다. 『華岳』 발행 당시 밀양군 기수(技手)로 일했으며, 경남 농무부 농지개발과, 밀양수리조합 공무원사를 거쳤다. 1950년 9월 문충 밀양지부 결성에 참여했으며, 1956년 밀양문화구락부 회원, 1962년부터는 한국문협 밀양지부장으로 일했다. 1957년 밀양문화제를 창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밀양 지역문화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 1954년 문예동인지 『阿娘』을 5집까지 발간하였으며, 석화동인회를 결성하여 동인지 「石花」를 4집까지 냈다. 이순욱·이용인·류종관 대담, 「아랑이 석화를 피워 문향을 일구다-운정 류종관 시인을 찾아서」, 『밀양문학』 제20집, 밀양문화회, 2007, 159~173쪽.; 이순욱, 「1950년대 밀양 지역문화와 매체 발간의 전통」, 『지역문화연구』 제8호, 경남·부산지역문화회, 2003, 24~31쪽.

『華岳』 제2호 차례		
表紙	江海永
題字	木石
칼	木石
苦悶	素民
멘탈테스트(Mental Test)의 意義	盧在燦
個性論	白孝雄
數學雜感	辛軫基
兒童의 心理와 그 指導	白松
옛시조 세 마리	申鶴祥
【隨筆】 술	翠泉
心解脫에 對해서	달마슈—나따
教育愛	姜惠秀
詩調二題	朴昶灝
【詩】 小曲	朴永郁
비	何山
(詩二題) 旗, 金길	牧園
地獄	鄭亨錫
목단꽃	하병준
會員消息	編輯生
時事數題	展望生
【小說】 아들의 모습	朴泰乙
編輯後記	編輯部

2호에서는 1호와 달리 향토문화 관련 기획이 아예 배제되었다. 동인 결성의 취지와는 사뭇 다른 편집이다. 이를 통해 향토문화에 대한 동인회의 인식과 이해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2호에서는 표지를 그린 강해영(江海永) 외에 소민(素民), 하산(何山), 정형석, 전망생(展望生)이 새로운 필진으로 참가했다.

1호의 갈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교육과 관련된 글을 많이 수록하였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당시 초중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노재찬⁴⁴⁾과

44) 1925년 밀양군 단장면 사연리에서 나서 2007년 돌아갔다. 호는 응재(凝齋). 1946

백효웅, 신진기, 강혜수의 학술단평과 백송의 글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동인회의 인적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호에서 초중등학생의 투고를 독려하는 광고를 낸 바 있는데⁴⁵⁾, 2호에서 하병준(밀양공립농잠중학교 4학년)의 「목단꽃」을 투고작품으로 실었다. 그러나 편집진의 의도와는 달리 투고작품의 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에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⁴⁶⁾ 『華岳』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고 필진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실패한 까닭은 매체의 유통이나 동인회 내부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당시 밀양의 문화적 여건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같은 시기 경남 행정의 중심 지역이었던 진주가 문화예술 영역에서 드넓은 인적 구성이나 높은 문화 역량을 발휘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따라서 밀양은 진주와는 달리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할 신문사나 대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했던 까닭에 지역민들의 문학교양을 진작시키고 지역 단위의 문학사회를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華岳』은 전문적인 문학동인지라기보다는 향토 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지평을 드높이려는 의도를 지닌 지역인사들이 낸 일종의 종합지라 할 수 있다. 화악동인회는 인적 구성에서 문단 이력을 가진 문인이 단 한 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학에 대한 인식과 이해, 작품 수준도 낮은 편이었다. 교육계 인사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까닭에 이들의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동인회의 결속력이 크게 무너졌을 것으로

년 경성경제전문학교 부설 임시중등상업교원 양성소를 졸업한 후, 1947년까지 밀성공립국민학교 교사로 일했다. 1952년 대구사범대학 문학부를 수료하고, 이듬해 고등학교 교원검정시험(국어과)에 합격하여 칠원중학교, 남성여고, 울산농림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1960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62년에 부산대학교 문리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후학을 양성하다가 1990년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에서 정년을 맞았다. 낸 책으로 『한국근대문학론고』(삼영사, 1981), 『日居月諸』(제일문화사, 1990) 등이 있다. 「웅재 노재찬 박사 연보」, 『어문교육논집』 제11집, 부산대 국어교육과, 1991.

45) 「學生欄 設置」, 『華岳』 제1호, 62쪽.

46) 3호부터는 박태울의 추고(推稿)가 있을 예정이며, 개인적 지도를 받으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編輯後記」, 『華岳』 제2호, 63쪽.

보인다. 이처럼 화악동인회는 창작 역량과 편집 기획 능력, 지역사회의 관심 등이 뒷받침되지 않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華岳』 1·2호를 발간하고는 더 이상 매체를 발간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華岳』은 광복기의 혼란 속에서 밀양 지역의 지식권력이 지역문화의 장에서 상징권력을 획득해 나갔던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1950년대 밀양 지역의 문화적 성장 동력은 화악동인회의 활동에서 비롯된 바 크다. 동인회의 주요 필진이었던 이진화와 신학상은 밀양 교육계를 이끌면서 향토문화 수립이라는 화악동인회의 취지와 매체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文林』과 『鄕土文化』를 발간하였다. 화악동인회의 실질적인 편집자였던 강혜수도 문충 밀양지부의 조직부장으로 이름을 올리며 지역의 문화 창달을 주도했으며, 유종관은 1954년 문예동인지 『阿娘』을 발간하여 청년문사들의 문학적 역량을 키워내기도 했다. 이러한 매체 발간의 전통을 바탕으로 1959년 본격적인 문학동인지 『石花』가 탄생함으로써 밀양은 나름의 문학사회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향토의 발견과 장소사랑

『華岳』 1·2호에 실린 문학작품은 시 12편, 한시 4편, 시조 3편(박경호47), 정형석), 소설 2편, 수필 2편으로, 대체로 소품에 불과하다. 그러나

47) 박경호의 「詩調二題」는 독자적인 작품으로 발표되었으나 수필집을 엮으면서 「無題-光復의 歡喜 속에서」라는 제목의 연시조로 거둬들였다. 약간의 손질을 가해 1, 2연에 이 시조를 두었으며, 3연을 별도로 추가하였다. 선천에 대한 그리움(1연)과 자신의 본분에 대한 강조(2연), 농부의 나태함에 대한 충고(3연)를 노래하고 있는 시조의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때 흘러 20星霜 靈容도 흐릿하다/娑婆를 떠나시어 冥府尊位 오래시니/ 목메여 울며 부른들 오실 길이 있으랴// 내 싫어하는 일은 남도 싫어하는 것을/내 할 일 내가 하면 남도 제 일 다할 것을/내 할일 내 할일 말고 내 할일만 하여라//원 三冬 긴긴 밤에 무엇을 하였건데/細雨盛春에 困히도 잠자는고/아기야, 저 農夫 잠깨워라 春耕 때가 늦어간다.” 박경호, 앞의 책, 42~43쪽.

근대 밀양 지역문학의 전통 속에서 밀양의 장소성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드물다고 볼 때, 화악동인회에서 밀양을 새롭게 발견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서는 영남루를 형상화한 시와 광복기 밀양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박태일의 소설 「악몽(惡夢)」을 중심으로 화악동인들의 장소사랑⁴⁸⁾을 살펴보고자 한다.

4.1. 영남루 표상과 높은 심상성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 실존적인 생활공간인 장소 탐구가 기본 전제다. 지역민의 삶의 기반인 장소는 오랫동안 그들의 일상생활을 통해 형성되고 의미화된다. 이러한 밀양의 대표적인 장소는 바로 영남루다. 밀양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영남루는 진주 축석루와 승경(勝景) 논쟁을 야기할 만큼 밀양 지역민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영남루 대숲에 그 절의가 오롯이 살아있는 아랑설화는 영남루를 '높은 심상성'⁴⁹⁾을 지닌 장소로 올려 세움으로써 밀양의 지역이미지를 형성하는데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영남루는 아랑설화로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오랜 세월 문화적 적층이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밀양 지역문학의 주요한 제재로 활용되고 있다.⁵⁰⁾

48)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장소애로 번역하고 있는 *Topophilia*을 말한다. 물질적 자연에 대한 인간의 모든 감정적 관계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는 '장소사랑'이라는 용어는 박태일이 가장 처음 썼다. 박태일, 「한국 근대시의 공간과 장소」, 소명출판, 1999, 134쪽. 박태일에 이어 최지원이 「지역문학연구」 제6호(경남지역문학회, 2000)에 이-푸 투안(Yi-Fu Tuan)의 「*Topophilia*」(1974) 8장과 9장을 번역하면서 '장소사랑'이라는 용어를 널리 알렸다.

49) 심상성(*imageability*)이란 한 개인이 어떤 장소를 접할 때, 머릿속에 그 장소의 모습을 읽어들이고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에드워드 렐프 지음·김덕현 외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8, 88쪽.

50) 한시문학을 대상으로 영남루 표상을 연구한 하강진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하강진, 「密陽 嶺南樓 題詠詩 研究」, 「지역문학연구」 제13호, 경남·부산지역문학회, 2006, 9~72쪽.

던하에 승디를 말하는 이는 영남루를 빼여 노홀 수 업고 또한 영남루를 보지 못하고는 던하의 명승을 말하지 못하리다. -(가운데 줄임)- 호탕(浩蕩)한 가운데 섬세(纖細)가 잇고 산만(散漫)한 가운데 장쾌(壯快)를 겸한 영남루의 경치를 그려냄에는 나의 붓이 넘어나 초솔함을 붓겨려워 합니다.⁵¹⁾

나라잃은시대 황상규와 비밀결사 일합사(一合社)를 조직하고, 윤세주와 밀양면 기미만세의거를 주도한 윤치형의 글이다. 의열단에서 활동하다 일제에 검거되어 5년간의 옥살이를 한 뒤, 중국으로 망명하기 전에 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천하의 명승지를 말할 때 영남루를 빼놓을 수 없으며, 오히려 영남루를 그려내는 자신의 붓이 거칠고 불품없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그에게 영남루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결정했던 표상이자 자부심의 원천이다. 광복을 위한 오랜 망명의 나날 속에서 고향 밀양은 조국의 다른 이름이었으며, 마땅히 회복되어야 할 공간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한 고향의 중심적인 장소가 바로 영남루다.

解放되어 처음으로 故鄕에 닥쳤드니
嶺南樓도 반가워라
南川江도 새로워라
앞동산 숲속에서 監視哨 없으지고
길거리 防空壕도 뭍으졌구나

몸서리날 記憶도 가지가지인
警察署 마당에도 太極旗가 필 필
倭사람은 떠나가고
有志紳士 볼 수 없어
長歎息의 先輩들이 人民倭員 되어 있고
警防團 團員들도 組合일 말으보아

51) 윤치형(尹致衡), 「향토 레찬 내 고을 명물-密陽 名物 嶺南樓의 勝景」, 『동아일보』 1926.7.28, 5면.

三七制 이야이는 兒孩들도 알더네

故鄉을 떠난지 十五年짜리
 앞마을 朴서방은
 日本서 돌아오고
 路下里에 金침지는
 滿洲서 돌아왔네
 떠날 때 땅도 없고
 돌아와도 집도 없어
 허리건 좋아매고
 故鄉에만 굶주리다 돌아왔다네

아 하
 舞鳳庵 鐘소리가 다시 울리고
 自由와 希望의 새싹이 트너
 農事도 지얼시고
 銀魚도 잡아보세

-박석정, 「歸鄉」 전문⁵²⁾

박석정⁵³⁾에게 나라잃은시대 고향 밀양은 순결한 향토가 아니라 수탈과 가난으로 점철된 상실만을 안겨주었다. 1929년 가난과 일본인 고리대금자의 횡포 때문에 동경으로 떠났던 그였다. 그러다가 1936년 혹독한 전향의 계절을 맞아 “病든 몸만 갖이고” 귀향했을 때도 고향은 식민지 근대가 강제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앞동산 嶺南樓가 미웁게 變해지고” “心臟은 말러지고 뼈만 남은 내 故鄉이/ 숨차게 都市化하는 꼴”⁵⁴⁾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다. 생리적 고향이지만 밀양은 더 이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느낌을 부여해 주지 않았으며, 낯설음과 궁핍, 폐허로

52) 「前線」 창간호, 인민해방보사, 1946.3, 39~40쪽.

53) 박석정에 대해서는 이순욱, 「박석정의 삶과 문학 활동」, 앞의 책, 455~481쪽을 참고할 것.

54) 박석정, 「故鄉에 돌아와서」, 「浪漫」 제1집, 낭만동인회, 1936, 104~105쪽.

인식되었던 셈이다.

그러나 인용사에서 보듯 광복을 맞아 “十五年”만에 찾은 고향은 “自由와 希望의 새싹”이 트이는 장소로 인식된다. 이것은 자신의 실존 전체를 지배했던 ‘진정하고 무의식적인 장소감’의 회복에 연유한다. 진정한 장소감이란 무엇보다도 내부에 있다는 느낌이며,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나의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말한다. 이 소속감은 집이나 고향, 혹은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다.⁵⁵⁾ 밀양이라는 장소와의 지속적인 유대 상실은, 즉 “내부에 있다는 느낌”의 박탈은 국권의 상실과 그에 따른 식민지 근대화에 기인한다. 이러한 상실감은 을유광복을 맞아 귀향함으로써 회복되고, 밀양은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장소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용사에서처럼 진정한 장소감은 제국주의 일본의 지배 상징인 “監視哨”와 “防空壕”가 무너지고, “自由와 希望”으로 충만한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악동인회는 밀양이라는 장소를 어떻게 발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1)

華岳亭亭護癡州	우뚝 선 화악산 응주[밀양]를 지키고
閑雲嶺土日悠悠	산봉우리 한가한 구름은 날마다 유유하노라
輪困這裏玄同 ⁵⁶⁾ 藏	높디높은 저 곳에 현동의 이치 숨어 있고
聚敬 ⁵⁷⁾ 那中造化流	몽ଚ다 흩어지는 그 속에 조화가 돌고 도네
隨風有要任連合	바람 따라 요령 있게 합침을 내맡기는데
出岵無心反住留	봉우리에서 무심히 나오다 도로 멈추도다
欲學高棲難可得	고상한 은둔 배우려면 묻혀 지내야할진대
英英一朶太虛浮	아름다운 구름 한 점 허공에 떠다니네

55) 에드워드 렐프 지음·김덕현 외 옮김, 앞의 책, 148~150쪽.

56) 玄同(현동)은 몰아일체의 상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지냄을 일컫는다. 『老子 玄德』에 “자신의 빛을 부드럽게 하고 세속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현동이라 한다[和其光同其塵, 謂之玄同].”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57) 聚敬(취경)은 취산(聚散)의 오류이다.

-同塵, 『華岳閑雲』58)

(2)

江城如畫裏 강성이 그림 속에 있는 듯
 秋月春風席 가을달 비치고 봄바람 부는 자리
 屹立半空天 중천에 누각 우뚝 솟았나니
 登斯問幾賢 이곳에 어진 이 몇이나 올랐나

-同塵, 『登嶺南樓』59)

인용시 (1)은 동진 이진화가 노래한 『嶺南樓十景詩』 가운데 하나이다.⁶⁰⁾ 여기서 영남루는 밀양의 환유적 표현이므로, '영남루 십경'은 곧 밀양 십경을 일컫는다. 그는 영남루, 곧 밀양의 명승지 10곳을 7언율시에 담아 밀양의 대표적 장소로 올려세웠다. 영남루의 맑은 바람(嶺樓淸風), 화악산의 한가로운 구름(華岳閑雲), 무봉산의 절(舞鳳梵宮), 아랑의 사당(阿娘貞祠), 백 길의 무지개다리(虹橋百丈), 십 리의 강물구비(環流十里), 높다랗게 내민 용두산(龍頭高角), 마암산의 층층절벽(馬岩層壁), 웅천[밀양강]의 낚시배(凝川釣艇), 낙동강 포구로 돌아가는 돛배(洛浦歸帆)가 바로 그것이다.⁶¹⁾

58) 『華岳』 제1호, 42쪽.

59) 『華岳』 제1호, 43쪽.

60) 『嶺樓淸風』을 인용해야 마땅하나, 십경시 가운데 인용시와 『舞鳳梵宮』, 『環流十里』, 『洛浦歸帆』 세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문이 불완전하다. 조판상태가 좋지 않아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밀줄친 부분처럼 한자로 표기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嶺樓淸風』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一樓高架半空天 萬里淸風快活年 披拂經山人坐塔 登臨盛暑客投扇 詩情滿眼難爲俗 爽氣盈襟不換仙 形勝南州名價最 佳山麗水展無邊.

61) 밀양 십경 혹은 팔경을 노래한 밀양 승경시의 전통에서 영남루는 밀양과 동일시될 만큼 밀양의 대표적 공간이다. 조선 전기의 문신인 서거정도 『密陽十景』을 노래하였는데, 우령산의 한가로운 구름(牛嶺閑雲), 마암[마암산]에 흩날리는 비(馬山飛雨), 웅천의 낚시배(凝川釣艇), 삼포[사포]의 고기잡이 등불(級浦漁燈), 용두산 절벽의 봄꽃(龍壁春花), 밤섬의 가을 연기(栗島秋烟), 형봉의 해돋이(瑩峰初旭), 나현에 쌓인 눈(羅峴積雪), 서쪽 교외의 계모임(西郊修禊), 남포의 손님 전송(南浦送客)을 밀양의 명승으로 꼽았다. 정경주 편역(이운성 교역), 『嶺南樓題詠詩文』(밀양

(1)은 화악산의 유유한 구름에서 화자가 삶의 이치를 깨닫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악산의 장관은 구름의 신묘한 조화에 있고, 그 풍경에서 촉발된 화자의 서정적 감흥은 고상한 은둔을 배우기 위해서는 묻혀 지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에게 고상한 은둔의 자세를 요구한 상황이 무엇인가는 알 수 없으나, 화악산은 분명 화자의 뜻을 키우는 대상이자 인간의 욕망과 의지가 자유롭게 발현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자연의 조화는 화자의 삶의 좌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렇기에 한가로운 구름을 현동의 상징으로 보고 그것을 좇으려 하는 것이다. (2) 또한 영남루를 심미적 공간이자 이상화된 풍경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것은 나라잃은시대 제국주의가 자행한 영남루 경관의 훼손과 무관하게 역사적 변화 속에서도 결코 훼손되지 않은, 화자에게는 자연과 통합된 자족적 공간이다. 즉 식민지 근대의 파행과는 다른 지점에 놓여 있는, 한 편의 풍경화를 연상케 한다. 이 아름다운 풍경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상하는 고향의 이미지를 상상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南川江 푸른물에 銀魚帶 춤을 추고

문화원, 2002), 45~50쪽 참조. 밀양의 승경에 대한 자부심은 문학의 영역을 떠나 지역사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물론 편찬자의 시각이나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다. 근대 들어서는 “영남루 가을달(嶺南樓 秋月), 무봉사 저녁 종소리(無鳳寺 晚鐘), 밀양강 해질녘(密陽江 夕照), 용두 밤비(龍頭 夜雨), 삼문 아지랑이(三門 晴嵐), 남포 돛단배(南浦 歸帆), 사포 기러기떼(沙浦 落雁), 종남산 봄눈(終南山 春雪)”이 밀양 팔경으로 새롭게 발견되고 의미화되었다. 宮本寅吉, 『密陽物語』, 밀양궁본사진관, 1931, 12쪽. 2007년에는 밀양시가 밀양팔경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들의 공모를 통해 “영남루 야경, 시례 호박소, 표충사 사계, 월연정 풍경, 위양못 이팝나무, 만어사 운해, 재약산 억새”를 ‘밀양팔경’으로, “사명대사 비석에 흐르는 땀, 여름에 얼음이 어는 얼음골, 만어사의 경석”을 밀양의 ‘3대 신비’로 선정하기도 했다. 밀양의 명승을 영남루를 정점으로 밀양읍에 한정했던 이전과는 달리 밀양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문화관광을 염두에 둔 일종의 장소마케팅인 셈이다. 관광객의 흥밋거리를 넘어 이러한 장소의 상품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밀양의 이미지와 지역가치를 드높이는 데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는 쉽게 단언할 수 없다.

靑龍山모랑이 낙싯배도라간다
嶺南樓의 푸른松竹 微風에웃음웃고
密陽의 嶺南樓는 嶺南의第一이라

萬古貞烈 阿娘아씨 보고싶어 왓것만은
阿娘은 간곳업고 靑峴기 阿娘碑에
怨恨만 싸엿도다

문노라 南川江아 가노라 華岳山아
解放의 鐘소래를 너이들도 들엇겠지
獨立의 그날까지 靑靑도하거라

-류장춘, 「嶺南樓 風景詩」 전문

인용시 또한 “화악산”과 “남천강”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빌어 독립을 갈망하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여기에서도 밀양 승경시의 전통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密陽의 嶺南樓는 嶺南의 第一”이라는 인식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견고하게 형성되어 온 밀양 지역민의 영남루 표상이다. “密陽이라면 嶺南樓를 聯想한다. 嶺南樓는 實로 南名樓요 江左雄府”⁶²⁾라는 자부심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1연에서 영남루의 “微風”(嶺樓淸風)과 청룡산 모롱이를 돌아가는 “낙싯배”(擬川釣艇)는 밀양 팔경 가운데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2연에서는 영남루의 명성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열녀 아랑의 표상이 단순히 승경의 대상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원한”의 공간으로 새롭게 의미화된다.

이처럼 영남루를 노래한 시들은 밀양의 자연경관을 회화적으로 그려내면서 거기에 화자의 정서와 삶의 논리를 투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영남루의 빼어난 경관은 다른 지역에서 발견할 수 없는 심미적 대상으로 의미화되고, 화자가 깨달음의 경지로 도약하거나 현실적인 소망을 투영하는 의미 있는 표상으로 창출되는 것이다. 특히 지역민들이 공통

62) 신학상, 「嶺南樓의 由來와 勝景」, 「華岳」 제1호, 10쪽.

적으로 경험하는 영남루라는 경관의 상징은 집단적으로 규정된 장소의 식⁶³⁾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상징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영남루는 그 의미가 재생산되면서 널리 확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광복기 화악동인회가 심미적으로 의미화한 영남루는 자칫 다른 지역에 전출 수 없는 절대적인 공간이거나 지역우월의식을 드러내는 표상이라는 점에서 향토주의나 자기 지역 중심주의로 흐를 위험이 다분하다.

4.2 생활세계의 변화와 계몽지향성

지역문화는 그 지역을 고향으로 섬기는 이와 그 지역에 깊은 친밀 경험과 장소사랑을 실천한 이들이 엮어내는 문학이다.⁶⁴⁾ 문제는 이러한 친밀 경험과 장소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다. 넓게 보아 지역문화는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터전 위에서 생산된 문학을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지역문화는 지역에 대한 친밀 경험과 장소사랑뿐만 아니라 지역 말, 지역 풍토, 지역의 문화관습과 사회경제적 토대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문학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모룡의 지적처럼, 밀양 지역문화는 단순히 밀양에서 글을 쓰는 사람들의 작품의 총량이 아니라 밀양의 역사성과 사회성, 장소성을 담보하는 작품들이라 말할 수 있다.⁶⁵⁾

근대문학에서 밀양은 문학적으로 의미화되지 못했다. 지역 출신 작가층이 엮은 까닭도 작용했겠지만, 부여나 경주처럼 제국주의의 기획에 의해 창출된 찬란한 과거의 표상으로서든 기행이나 승지유람의 공간으로서 대 표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앞서 든 박석정의 시를 제외하고는

63) 렐프는 장소와 공동체의 관계가 경관에 표출되며, 경관은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모든 경관 요소들이 메시지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규정된 장소의식”은 같은 장소 출신의 사람에게 그 장소 자체가 지닌 본질적으로 동일한 정체성을 부여하며, 그 역도 성립한다고 본다. 에드워드 렐프 지음·김덕현 외 옮김, 앞의 책, 87쪽.

64) 박태일, 「한국 지역문화의 논리」, 청동거울, 2004, 50쪽.

65) 구모룡, 「지역문화의 현실과 전망-「밀양문학」을 중심으로」, 「밀양문학」 제20집, 밀양문화회, 2007, 11쪽.

이광수의 『무정』에서 주인공 이형식의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배경으로서 삼랑진이 등장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밀양의 장소에 대한 친밀 경험을 바탕으로 삼은 표문태의 「七灘亭夜話」와 김정한의 「뒷기미 나루」(『창작과비평』 제15호, 1969.12), 김춘복의 「쌈짓골」(『창작과비평』, 1977)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경부선(京釜線) 열차가 경상남북도의 경계지대로 넘어서 남으로 유천(兪川) 지나가면, 차창으로 내다보이는 산수가, 유달리 활기를 띠어 여객의 눈을 끈다.

철로를 따라서 흐르는 청려한 강물이 이곳에서 밀양분지(密陽盆地)를 굽이굽이 꿰뚫어 낙동강 본류에 이르기까지의 연안일대는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녹음방초와 기화요초가 곱고 기이하여, 고래로 영남의 승지(勝地)로 이름 있는 지방이거니와, 이곳은 또한 신라 때부터 고려, 이조로 내려오면서, 곳곳에 남아 있는 유서와 전설에 얽힌 낡은 산정(山亭)이 많기로도 사람의 관심을 끄는 곳이다.

강 건너 바라보는 솔밭, 밤밭, 과수원 너머로 넓은 벌을 거쳐, 벌 저쪽으로 시선을 모으면 양산(梁山) 통도사(通度寺)와 밀양 표충사(表忠寺)와의 경계 지대에 우뚝 솟은 백운산(白雲山) 골짜기에서 흘러내려서 남천강에 합류하는 시내가 보이며, 시냇가로 바싹 다가 검푸른 색종이를 오려 붙인 듯한 밤밭 숲이, 동에서 서로 줄기차게 뻗친 소백산지맥(小白山支脈)의 북녘 그늘 밑에, 웅기종기 모여 사는 초가집들을 끼고, 멀리 차창을 스쳐간다. 이 밤밭 맞은편 산허리, 소나무숲 속으로 눈을 더듬으면, 먼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나, 방금 기울어질 듯 비스듬히 강물을 내려다보고 서 있는 산정 하나가 있다. 칠탄정(七灘亭)이다.⁶⁶⁾

「七灘亭夜話」는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나섰던 첫 방문과 10년을 훌쩍 넘겨 요양차 찾아 과수원을 일구었던 두 번째 방문에 이은 세 번째 방문에서 느닷없이 화자를 방문한 동향의 동경유학생 손득룡의 귀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⁶⁷⁾ 인용문은 소설의 도입부로, 서술자는 밀양의 역

66) 표문태, 『서러운 사람들』, 일월서각, 1978, 23~24쪽.

사와 자연경관을 조망한 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무렵 동경에서 귀국하여 조국 광복을 맞이할 준비를 위해 은거했던 칠탄정의 지세를 묘사한다. 칠탄정은 밀양시 단장면에 있는 칠탄서원의 부속 건물 가운데 하나다. 여기에서 밀양은 “영남의 승지(勝地)로 이름 있는 지방”이자 “유서와 전설에 얽힌 낮은 산정(山亭)이 많기로도 사람의 관심을 끄는 곳”으로 표상된다. 역사 경관과 자연 경관을 전통유산으로 간주하여 밀양의 의미를 강조한 것은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의미 부여를 통해 밀양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밀양이라는 특정 지역의 역사와 경관은 독자들에게 밀양의 본래 모습을 상상하게 하고, 소설은 이러한 밀양의 실체를 또 다른 방식으로 담아내는 작업이다. 단순한 흥미를 넘어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지역 생활사를 재구하는 일은 지역문화 연구의 중요한 몫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화악동인회는 밀양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살펴보자.

박태운의 『악몽(惡夢)』은 광복기 밀양에서 교육운동에 전념하던 교사 현철이 5년간 연인이었던 영혜와 헤어지게 되는 과정을 담은 장편소설(掌篇小說)이다. 장편소설은 한두 개의 에피소드로 강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며, 단편소설보다 명료하고 수필보다 설득력이 강한 소설 양식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시간착오기법을 차용하여 오히려 이야기의 유기성을 떨어뜨리거나 연애의 삼각관계에서 은애와 영혜의 갈등관계가 전경화되지 않아 극적 긴장이 약하다는 흠을 지닌다. 그런데도 두 가지 측면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우선, 이 소설은 광복기 밀양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사회풍속사 자

67) 이 소설은 작품의 끝에 <道德·1946>라 작품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표문태, 위의 책, 40쪽. 그러나 『道德』 창간호가 1952년 9월 부산에서 발행된 점으로 미루어 1946년은 분명한 기억의 착오다. 나라잃은시대 말기 징용을 피해 칠탄정으로 은신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1946년에 발표했으나 발표매체를 잘못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

료로 유용하다.

금년 들어 버쩍 는 들노리가 별별 이름으로 성행하고 있었다. 사내들은 전쟁 냄새가 붓터 있다는 농담을 듣는 카—키색 양복을 그대로 입었거나 칠 잃은 흰양복을 병정구두에 걸쳐 입고 있지만 여자들의 치장은 미국 물자까지 합쳐져서 없는 것이 없다.

현철이가 어느 일요일 저녁무렵에 새로 책이 들어 왔다는 책점 주인의 고마운 통지를 받고 시가 복판을 흘러나리는 남천강 철교를 건느고 있었다.⁶⁸⁾

주인공 현철이 영혜와의 관계에서 틈을 느낀 것은 미군정이 국내에 물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가던 1945년 겨울 무렵이다. 미국물자가 흔해지면서 의복문화가 “몸뻍”에서 “비단치마”로 바뀌고 “새 부자가 죽순나듯” 양산되었으며, 청춘남녀의 들놀이가 부쩍 성행하던 때이다. 문제는 영혜가 이러한 시대적 풍조에 편승하여 속물적 가치를 지향한다는 데 있다. 영혜는 서울에 대한 동경과 재력가인 “남조선 무역화회 밀양지점의 젊은 지점장”과의 연애로 현철과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여긴다. 영혜의 이러한 의식 변화를 통해 미국문화가 밀양 소지역에 끼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무척 흥미롭다.

다음으로, 표면적으로는 연애의 삼각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교묘하게 이항대립의 구조를 통해 당시 밀양의 지역사회가 직면한 현실 문제와 그것을 극복하는 지식인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

“마조막인 바에야 더 길게 머물거릴 것도 없소. 꿈을 껴 바에야 속히 깨야죠.”

현철은 입을 다물고 영혜를 노려보았다.

“마조막이야 되겠습니까만 현실적 사실을 무시할 수 없어서…….”

“현실적 사실? 그것은 무엇을 지적하오. 취직? 지점장의 총애? 어쨌던 현명한 리아리스트입니다.”

68) 「악몽(惡夢)」, 『華岳』 제1호, 46쪽.

현철의 눈에서는 달빛에 번적이는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나왔다.

“영혜씨 죽음으로 치녀를 지킨 아랑은 영혜씨의 현철한 사실을 칭찬하겠지요. 그러나 영혜씨만이 꿈을 깨려하시는 줄 아오? 모두가 조선의 악몽을 깨려하오. 먼길을 떠나려는 현철은 지점장의 첩으로 만족하는 영혜씨를 축복하오.”⁶⁹⁾

인용문은 지점장의 “자가용차”를 타고 가는 영혜를 보고 둘 사이의 균열을 느끼고 있던 현철이 영혜의 전화를 받고 영남루에서 영혜를 만나는 장면이다. 영혜의 꿈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의 산물이라면, 현철의 꿈은 외세의 그늘에서 벗어나 교육을 통해 조선의 자주독립을 추구하는 데 있다. 영혜를 변화시켰을 만큼 광범위하게 침투해 있는 미국문화와 그로 인한 젊은이들의 퇴폐적인 문화풍조는 분명 “조선의 악몽”이다. 현철은 영혜의 선택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길에 부르짖는 영혜의 소리를 듣지만 “은애씨 용서하오.”라는 말을 중얼거리면서 남천강을 건넌다. 현철은 자신이 결혼하기까지 시집을 가지 않겠다는 은애에게서 “죽음으로 치녀를 지킨 아랑”의 정절을 발견했던 것이다. 세속적 가치를 좇아 정분을 저버리는 당시의 사회 풍조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타락한 여성과 건강한 남성, 서울 지향성과 밀양 정주를 이항 대립시켜 영혜의 선택과 삶의 방식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통해 널리 알려진 아랑의 정절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중되어야 할 가치로 현창(顯彰)되고, 아랑은 거듭 밀양의 표상으로 재생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랑 표상으로 강화된 밀양 지역의 보수주의적 기풍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문제적이다.

아랑 표상과 함께 현철이 아이들에게 가르친 “독립행진곡”을 부르는 것으로 이야기가 종결되는 것은 광복기 문화변동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밀양의 이미지라 하겠다. 이것은 제국주의의 기획을 벗어나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처럼 이 소설에 재현된 밀양은 자본주의의 욕망에

69) 「악몽(惡夢)」, 위의 책, 52쪽.

포섭된 인간들의 일탈이 드러나는 공간인 동시에 그와 반대의 지점에서 새로운 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이를 통해 일반 민중을 계몽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향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5. 마무리

밀양은 문총지부가 결성된 한국전쟁기에서 1950년대 후반에 이르는 짧은 기간에 안정적인 문학사회를 구축해 나간 지역이다. 더불어 1960년대 초반 문학예술이 국가의 기획 속으로 편입되면서 자체 동력을 급격하게 상실한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문학사에서 지역문학의 운명을 살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이 글은 이제까지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던 광복기 밀양의 동인지매체인 『華岳』을 대상으로 화악동인회의 이념과 인적 구성, 밀양이 의미화되는 방식을 살피고자 했다.

첫째, 『華岳』은 광복 초기의 이념대립 구도가 급격하게 재편되던 1947년 6월 발간되었다. 화악동인회는 결성 당시 향토문화의 창달과 향상을 주된 과제로 제시하였다. 향토사랑이 국가사랑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됨으로써 향토는 국가의 이미지로 표상되었다. 다시 말하면 향토는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시대적 소명 앞에서 국가의 의미로 설정되었던 것이다. 화악동인회가 향토를 민족국가 형성의 거점으로 보고, 그 전략으로 향토문화의 향상을 꾀한 것은 향토의 새로운 발견이다. 국민국가가 수립된 이후에는 향토와 민족 전통의 이해가 교육법의 목표로 제시될 만큼⁷⁰⁾, 향토는 국가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적 장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화악동인회의 이념은 김원봉 중심의 민주주의민족전선 노선과 상당부분 닮

70) 교육의 목표 7항 가운데 3항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향토와 민족의 전통과 현상(現狀)을 정확하게 이해시키어 민족의식을 앙양하며 독립자존의 기풍을 기르는 동시에 국제 협조의 정신은 기른다.” 「문교부령 제44호(1955.8.1. 제정 공포) 국민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아 있었다. 그것은 당시 좌우합작운동의 강한 영향권에 놓여 있었던 밀양의 상황과 의열단의 광복투쟁을 높이 받들던 지역사회의 분위기, 무엇보다도 민족통일전선을 추구해 온 김원봉의 영향과 깊은 관련이 있다.

둘째, 화약동인회는 당시 밀양 지역의 교육, 문화, 의료, 출판, 금융, 치안 영역에 종사하던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으로 조직되었다. 이들은 동인지 발행과 연구회 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삼았다. 회원 가입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당히 개방적인 단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인지 문필활동 경험을 가진 회원이 전무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에 대한 인식과 이해, 작품 수준도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화약동인회는 전문적인 문학동인회라기보다는 교육계 인사가 주축이 되어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지평을 확대할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라 볼 수 있다. 종합지적 성격이 다분한 기관지 『華岳』은 동인 내부의 사정, 문학교양과 창작 수준, 편집 능력의 문제가 겹쳐 1947년 12월 제2호로 종간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華岳』은 광복기 밀양의 지역인사들이 문화의 장에서 상징권력을 획득해 나갔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셋째, 동인지의 체제와 구성을 보면, 시와 한시, 소설, 수필, 비평, 번역문, 시사단평, 향토소식을 수록하고 있었다. 문예물은 시 12편, 한시 4편, 시조 3편, 소설 2편, 수필 2편으로, 한시를 제외하고는 습작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향토문화의 향상이라는 동인회의 취지에 걸맞게 1호에서는 영남루를 대상으로 한 시와 한시, 비평을 실어 밀양을 새롭게 발견하고 의미화했다. 밀양의 역사와 장소성에 심층적인 이해를 담고 있는 이러한 흐름은 한국전쟁기 향토지 『文林』과 『鄕土文化』의 발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호에서는 아예 밀양 지역과 관련된 향토의 현안문제나 관련 기획을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동인회의 결성 취지를 무색케 했다.

넷째, 영남루를 노래한 시들은 밀양의 역사경관과 자연경관을 회화적으로 그려내면서 서정적 감흥과 삶의 논리를 투사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영남루의 빼어난 경관은 다른 지역에서 발견할 수 없는 심미적 대상으로 표상되었다. 영남루가 갖는 이러한 경관의 상징성은 집단적으로 규정된 장소의식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남루는 새롭게 발견되고 재생산되면서 그 의미가 널리 확산될 수 있었다. 반면, 밀양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은 박태율의 「악몽(惡夢)」은 광복기 밀양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보기 드문 소설이었다.

광복기 경남 지역문학을 실질적으로 이끈 지역은 진주와 마산이다. 진주나 마산은 문학전문지 「영문」과 「남만파」를 통해 지역적 연대를 강화하고 후속세대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학사회를 견고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밀양은 문학사회를 구성할 정도의 명망가 문인이나 문학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추어 생활문학의 차원이지만 「華岳」의 발간은 밀양 지역문학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화악동인회의 구성원들이 한국전쟁기 문총지부의 결성에 참여하거나 전후 밀양 지역 문화운동을 주도한 것은 광복기의 매체 발간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광복기 밀양 지역문학과 지식사회의 동향을 온전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아직 미발굴 자료로 남아 있는 「등불」에 대한 갈무리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전쟁기 「文林」도 뜻깊은 자료다. 이들 매체가 갈무리된다면 형성기 밀양 지역문학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핵심어: 밀양, 「華岳」, 화악동인회, 지역문학, 향토, 향토의 발견, 영남루.

<참고 문헌>

1. 일차문헌

- 「華岳」 제1권 제1호, 밀양·화악동인회, 1947.6.
 「華岳」 제1권 제2호, 밀양·화악동인회, 1947.12.
 「1945~1955년 인사발령대장」, 밀양군 교육청.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밀양군 교육청.

2. 이차문헌

- 강만길 엮음, 「밀양의 독립운동사」, 밀양문화원, 2003.
 구모룡, 「지역문화의 현실과 전망-「밀양문학」을 중심으로」, 「밀양문학」 제20집, 밀양문화회, 2007, 13~19쪽.
 박경호, 「石雲隨筆集」, 대영문화사, 1982.
 박정상, 「부산 경남의 신문 잡지 출판 고」, 「전망」 제1집, 시로, 1984, 199~219쪽.
 박태일, 「한국 근대시의 공간과 장소」, 소명출판, 1999.
 박태일, 「한국 지역문화의 논리」, 청동거울, 2004.
 윤치형, 「향토 레찬 내 고을 명물-密陽 名物 嶺南樓의 勝景」, 「동아일보」 1926.7.28, 5면.
 이순욱, 「1950년대 밀양 지역문화과 매체 발간의 전통」, 「지역문화연구」 제8호, 경남·부산지역문화회, 2003, 11~49쪽.
 이순욱, 「박석정의 삶과 문학 활동」, 「어문학」 제91집, 한국어문학회, 2006, 455~481쪽.
 이순욱·이용인·류종관 대담, 「아랑이 석화를 피워 문향을 일구다-운정 류종관 시인을 찾아서」, 「밀양문학」 제20집, 밀양문화회, 2007, 159~173쪽.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文總創立과 文化運動十年小觀」, 서울·선광인쇄주식회사, 1957.
 정경주 편역·이운성 교열, 「嶺南樓題詠詩文」, 밀양문화원, 2002.
 표문태, 「서러운 사람들」, 일월서각, 1978.
 하강진, 「密陽 嶺南樓 題詠詩 研究」, 「지역문화연구」 제13호, 경남·부산 지역문화회, 2006, 9~72쪽.

『校友會報』 제2호, 밀양공립농잠중학교, 1929.8.

『浪漫』 제1집, 낭만동인회, 1936.

『大韓人士名鑑』 제1·2합집, 서울:대한홍보사, 1954.

『前線』 창간호, 인민해방보사, 1946.3.

宮本寅吉, 『密陽物語』, 밀양:궁본사진관, 1931.

에드워드 렐프 지음·김덕현 외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8.

<Abstract>

Regional Literature of Milyang during the Independence Period and *Hwa Ak*

Lee, Soon-Wook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deologies and composition of the *Hwa Ak*(『華岳』) Coterie and how regional characteristics of Milyang are represented by looking at *Hwa Ak*, which had not been identified, in order to provide a stepping stone for the explanation of Milyang's literary history.

First, *Hwa Ak* is the literary group's media that can help shed a light on the regional literature in Milyang during the period of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ese colonial rule, and its first issue was published in June 1947 by the *Hwa Ak* Coterie. It seems to have been closed down with its second issue on December 1, 1947, because of the lack of their editing skills and struggling printing house. As leftist groups gained ground in Milyang area during the early Independence period, *Deungbul*(『등불』) could have been published, while the oppression by the American military administration rapidly reshaped the regional culture, leading to the publication of *Hwa Ak*. The *Hwa Ak* Coterie, which had not involved in media struggles and found no other group to enter into the consciousness of the other at the time of its inauguration, stood for pure nationalism advocating simple regionalism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culture and the integration of different ideologies. Amidst the growing disenchantment at the political reality,

the coterie turned its eyes to their native country from political arguments. Therefore, *Hua Ak* vividly describes how local figures in Milyang could grab power in the literary circles during the disorderly Independence Period.

Second, the *Hua Ak* Coterie's priority was to publish its coterie magazine and to conduct research activities. In terms of its membership, the group was pretty open to new members without special restrictions. Notably, no members had professional writing experiences, and the level of their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literature as well as the quality of their literary works were relatively low. It is fair to say, therefore, that *Hua Ak* is not so much a professional literary coterie magazine as a comprehensive magazine published by like-minded local figures who wanted to raise the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local culture.

Third, when it comes to the magazine's contents, its collection includes poems, Chinese poems, novels, essays, critics, translated works, criticism on current topics, local news and others.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s of the group, its first issue contains poems, Chinese poems and criticism about Yeongnamnu Pavilion, but literary works related to the region were excluded in the second issue. The two issues publishes 12 poems, 4 Chinese poems, 2 novels, 2 essays in total, but all of them are short compositions. The tradition of publishing a local medium with in-depth understanding of Milyang region was succeeded by *Hyangto Munhwa*(「郷土文化」) and *Mun Lim*(「文林」)

Fourth, poems about Yeongnamnu Pavilion reflect the lifestyle of the speaker by depicting Milyang's natural beauty. The picturesque views surrounding Yeongnamnu are epitomized as paramount beauty of

Milyang unmatched by any attractions in the country. In particular, the symbol of Yeongnamnu shared by the local residents helped to maintain the public awareness of the place, and it seems that the significance of the pavilion has been reproduced and disseminated through this process. On the contrary, "Ak Mong(Nightmare)" by Park, Tae-Eul set in Milyang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source for historical records which show the lifestyles of the time. The structuralized binary opposition displays the choice that intellectuals had to make in dealing with the reality and overcoming challenges facing the local community in Milyang at the time.

Milyang successfully established a stable regional literary society in a short period of time between the Independence Period and the late 1950s. As literary art fell under the control of the government, literary activities in early 1960s greatly contracted and lost momentum. This example well reflects the destiny of regional literature in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To have a closer look at the Milyang's regional literature during the Independence Period and the trend among the intellectuals, it is necessary to finish off the study on the uncharted *Deungbul*. Another useful source is *Mun Lim* produced during the Korean War. When the in-depth researches on these works are complete, the literary history in Milyang can be fully explained.

Keyword: Milyang, *Hwa Ak*, Hwa Ak Coterie, regional literature, native country, discovery of native country, Youngnamnu(Pavilion)

* 이 논문은 2009년 7월 15일 투고되었고, 8월 5일 심사 완료되어 8월 7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